

# 新入生の生活環境과 價値觀에 관한 研究

— 1988 學年度 新入生을 대상으로 —

姜東植\* 金斗和\*\*

目 次	
I. 序 言	4)  자료처리
II. 調査의 方法 및 内容	III. 理論의 背景
1) 조사대상	IV. 結果 및 分析
2) 조사내용	V. 結 論
3) 조사절차	* 參考文獻

## I. 序 言

現代教育學이 強調하고 있는 人格의 均衡的인 發達을 위한 動力化를 보다 促進하기 위한 計劃的인 目的追求는 單순한 學校 教科中心的인 教育이나 校內活動指導에 依存할 수 없은 周知의 通論이다. 特히 個人差 ( individual difference )를 尊重하는 現代의 民主的 教育은 劃一性을 매우 強하게 抵抗한다는 것은 理致上 妥當하다.

各己 多樣한 特性을 갖고있는 新入生들에 對한 家庭的, 經濟的 그리고 매우 制限性을 지니고 있지만 社會的 意識을 파악하여 그 背景을 追求 分析함으로써 새로운 大學生活을 시작하는 新入生들에게 올바른 大學의 生態的 存在樣式을 傳하고 大學만이 갖는 독특한 風土에 잘 調和될 수 있는 方向을 제시하여 價値있는 四年間의 大學生活을 마치고도록 함은 매우 意味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本質的으로 教育은 集團的 教育을 통한 個性의 존중이라는 것은 期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 學生生活研究所 調査研究部長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輔導部長 (專任講師)

알려져 있다. 소위 말하는 Burk's Individual System이나 Parkhurst의 Dalton Plan 其他 Winnetka System 등이 考案된 것도 集團教育의 短點에 대한 脫皮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大學教育에 있어서 學生指導는 넓은 의미에서 個別指導란 실제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入學生에 대한 個人的인 특성을 調査하여 그것들의 最大公約數를 根據로 하여 그 方向을 提示한다는 것은 매우 所望스러운 것으로 評價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學生生活指導에 앞서 대상학생들의 實態와 그 背景의 파악은 제일의적인 意味를 갖는 것으로 이는 모든 學生指導計劃의 基礎資料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基礎生活를 영위할 수 있는 提示와 이것을 통해 近代教育에 있어서 學生指導의 現代化와 科學化를 期하는 데 本 研究의 意義와 目的이 있다.

## Ⅱ . 調査의 方法 및 內容

### 1) 調査 대상

1988 학년도 신입생 1,801 名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調査方法 및 內容

本 研究는 총 80 問項으로 構成된 質問紙法 (questionnaire method) 을 使用하였으며 그 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人的事項

性別, 本籍地, 成長地, 宗教, 신앙심, 年齡, 재수 여부, 출신고교 계열 및 종류, 신체 건강 상태.

#### (2) 家族事項

父母의 生存여부, 보호자와의 關係, 保護者의 學歷, 家族數, 出生順位, 家族居住地, 보호자의 職業, 住居形態, 種類, 父母의 종교, 신앙심.

#### (3) 經濟事項

家庭의 月收入 정도, 學費調達者, 가정의 경제수준, 부직활동 참여여부, 부직희망 이유.

#### (4) 對人關係

個人的인 일 논의, 자신과 父母와의 價値觀의 차이, 家庭의 분위기, 가정에서의 問題點, 父母의 養育態度, 친구의 數, 대인관계의 만족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이유, 원하는 친구의

유형,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이성교제의 경험, 앞으로의 이성관계 결정, 이성교제시 문제점, 자신에 대한 긍지, 자신의 목표달성도.

(5) 大學 및 學科志望

대학진학의 목적, 濟州大學校 志望動機, 학과결정요인, 지망학과에 대한 事前知識, 學科選擇時期, 選擇學科에 대한 만족도.

(6) 大學生活

입학후 거주 및 거주예정지, 대학생활동 예상되는 難題, 大學生活의 비중, 希望하는 씨클 활동분야, 바라고 싶은 教授와의 관계, 教授에 대한 기대, 독서계획, 독서종류, 어학훈련 계획, 어학훈련 방법,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여부, 원하는 상담문제, 濟州大學生으로서의 긍지, 新入生으로서의 알고싶은 사항, 대학생활동에의 적응여부.

(7) 卒業後의 計劃

大學卒業後의 계획, 卒業後 希望하는 職業, 직업선택시 기준, 살아가는 데 重點을 두고 싶은 것, 우리사회의 당면문제, 高等學生의 흡연, 음주에 대한 관점, 청소년 비행문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정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제주지역의 당면문제.

3) 調查節次

入學前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期間(1988年 2月 11日~24日) 동안 設問調査를 실시하였으며 '88. 3. 2日 각 학과 오리엔테이션시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設問紙의 數는 新入生 1,801名중 1,507名으로 84%의 회수율을 보였는데 대학별 구성비와 회수율은 <표-1> 및 <표-2>와 같다.

<表-1> 大學別 性別 構成比

대 학	남	여	계
인 문 대 학	39	221	260
법 정 대 학	77	47	124
경 상 대 학	93	126	219
사 범 대 학	44	130	174
농 과 대 학	139	38	177
해 양 과 학 대 학	107	19	126
이 공 대 학	282	145	427
계	781	726	1,507

〈表-2〉 大學別 設問紙 回收率

대 학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310	260	84 %
법 정 대 학	140	124	89 %
경 상 대 학	261	219	84 %
사 범 대 학	175	174	99 %
농 과 대 학	200	177	89 %
해양과학대학	160	126	79 %
이 공 대 학	555	427	77 %
계	1,801	1,507	84 %

## 4) 資料處理

回收된 資料인 設問應答紙 1,507 매의 처리는 濟州大學校 電算室에 依賴하여 一般的인 統計處理過程을 通하여 問項別, 單科大學別로 구분 百分率로 算出했다.

## Ⅲ. 理論的 背景

## 1) 大學生活

新入生들은 大學에 들어옴으로써 오랫동안의 統制的 生活에서 벗어나 解放感에서 授業準備나 態度에 海해지기 쉽다는 點 등 여러가지 副作用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授業이나 大學生活 그 自體의 準備性이나 態度의 海이로 결코 大學生活을 所望스럽게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妥當한 理致다.

오늘날의 大學教育을 단순히 現代的 社會特徵에 副應하는 專門的 知識이나 技術을 傳授 받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高等教育을 履修中에 있는 學生들은 어차피 哲學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哲學과의 만남이란 大學生活에서만 체험하는 가장 大學다운 香氣가 나는 生活樣式이다. 大學에서 哲學과 만나지 못한 大學生活은 무슨 意味를 갖겠는가. R.Ulich<sup>1)</sup>는 “단순한 學問的 技術만을 능

1) Ulich Robert, The Human Career, A Philosophy of Self-Transcendence, p.226.

사로 알지 말고 人間으로서 自己自身을 理解하고 그 스스로가 삶을 支配하는 데 있어서 도  
 와주려고 할 때는 哲學은 언제나 敎育과 만난다.”라고 했다. 이는 高等學校 때의 學科 暗記  
 위주의 學習으로부터 自由奔放한 思考의 幅을 넓힌다는 意味에서의 大學의 敎育과는 많은  
 差異가 있는 것이다. Hutchins<sup>2)</sup>는 高等教育의 目的을 知慧나 善이라고 主張하여 그의 恒存  
 主義 敎育思想을 잘 나타냈거니와 이는 美國의 反知性主義的, 지나친 職業主義와 科學主義의  
 傾向을 批判한 것도 大學敎育에 있어서는 再吟味,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大學  
 敎育의 目的이 어떠한 간에 幅넓은 敎育科目을 통한 새로운 思考의 展開를 위한 敎育은 必  
 須의인 것이다. 勿論 人間行動은 本質的으로 社會的인 것이지만 社會的인 人間行動은 特히  
 高等教育을 履修中에 있는 大學生으로서 品格있는 思考를 할 수 있는 基盤은 그와 같은 哲  
 學과의 만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大學生活에 있어서 將來의 進路指導와 아울러 敎科指  
 導, 또는 生活指導에 知的인 面이 調和있게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原來 敎育에 있어서 生活指導와 學習指導가 분담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  
 닌진데 이 두 分野는 學生生活指導에 있어 統合的인 立場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 2) 大學敎育

Vives 가 “人間의 最初의 敎師는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家庭敎育의 重要性을 示唆한 것으  
 로, 人間의 敎育은 家庭에서 始作되지만 그것의 올바른 “틀”의 수정 내지 형성은 大學敎育  
 이 責任을 져야할 部分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大學敎育은 時間的으로 空間的으  
 로 制限은 되어 있으나 大學以前의 人間成長과 大學以後의 人間成長의 架橋로서의 大學敎育  
 의 責任은 個人的 未來는 勿論, 廣義로는 國家未來와도 關聯된다고 볼 수 있다.

大學敎育은 大學以前의 여러 誤謬를 反省 내지는 修正케 하고 未來의 誤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요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大學敎育에서 소홀히 取扱  
 되는 人生陶冶敎育이 大學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 大學敎育은 敎育中の 敎育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重視되는 大學敎育이  
 단순한 技術習得이나 職業獲得을 위한 敎育만을 強調한다면 그 意義는 根本的으로 再考되어  
 야 한다. 大學敎育이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哲學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意味를 상실하게 된  
 다. 哲學과의 對話를 통한 幅넓은, 그리고 깊이있는 思考를 통한 社會의 有能한 實踐人으로  
 서의 勇氣를 준비하는 指導가 必要하고 이것은 哲學과 만날 수 있는 方向을 꾸준히 提示하  
 고, 暗示받는 大學敎育이어야 할 것이다.

2) Hutchins Robert M. Education for freedom, (Boston Rouge, Louisiana,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43), pp.19 ~ 39.

3) Brookover Wilbur and Gottlich David. A Sociological of Education, (N.R. American Book Co., 1964) pp.15 ~ 16.

### 3) 大學의 學生生活에 대한 方向提示

大學에 있어서의 學生指導는, 學生들의 生活舞臺가 家庭이나 小規模의 인 데다가 統制되었던 中·高等學校 舞臺에서 大學舞臺로 옮겨짐에 따라 大學教育의 使命上 더욱더 認識되어져야 한다. 大學은 知的教育과 技術教育을 組織的 效果的으로 獲得시키기 위한 學習機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獲得과 더불어 諸能力의 調和的 發達, 또는 人間의 陶冶, 全人的 教育 등 用語도 그에 못지않게 提高되고 있음도 最近의 教育學이 強調하는 바이다.

이렇듯 大學生의 健全한 育成이란 단순한 教科指導로써는 매우 난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바로 各 大學의 學生生活指導機關의 役割이 要請되는 바가 있다. 生活指導는 人間生活의 向上에 대한 意欲, 學習에 대한 意欲, 人間의 情緒의 安定과 精神의 沈着을 引導하는 꾸준한 忍耐的 作業이 要請된다.

人間의 情緒의 安定과 精神의 沈着을 引導하기 위해서 Rogers<sup>4)</sup>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條件을 必要로 한다고 했다. ① 靑少年指導者는 人間으로서 接觸할 것 (congruence), ② 感情移入的으로 理解할 것 (emphatic understanding), ③ 어떤 狀況이든, 어떤 일이 있든 포기하지 말 것. 끝까지 忍耐할 것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써 受容할 것 (acceptance), ④ 이와 같은 態度로써 接觸하고 있다는 事實을 靑少年들이 認知하는 일 (cognition) 등의 네 가지 條件을 提示했다.

學生指導에 있어 心理的인 환경의 積極적인 造成이 必須的임은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心理的 積極的인 環境을 위해서는 ① 自發性的의 回復; 自發性的의 原理는 近代教育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家庭의으로 어떤 缺損의 失調的인 要因을 안고 있는 學生들에 대한 自己向上을 위한 意欲을 刺戟, 喚起시켜 그 自發성을 回復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② 生活者로서 model 提示; 生活教育의 原則도 近代教育의 原理이다. 大學生들의 model이 될 수 있는 人物의 價値態度體系, 行動樣式은 極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 人物이 過去에 대한 格言的인 말 등을 提示하고 그 人物의 모방 내지는 평가를 통한 生活樣式의 形成은 훌륭한 model 提示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學生 leader의 育成; 學生中 어떤 學生의 特性이나 狀況에 알맞는다고 認定되는 學生은 그 集團의 leader로 育成하여 生活意欲, 抑壓되었던 學習에 대한 意欲의 回生, 그리고 偏見이나 歪曲으로부터의 解放 등을 위한 leader 혹은 協力者로 育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 Rogers C. R., (A)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Therapeutic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7), pp.95 ~ 103.

## IV. 結果 및 分析

### 1) 인적 사항

#### (1) 本籍地

신입생들의 本籍地別 분포는 <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道内에서는 濟州市가 25.2 %로 가장 많고, 다음이 西歸浦市로 14.9 %, 滄月邑 8.8 %, 翰林邑 7.2 % 순위이며, 道外인 경우는 全南이 2.5 %, 다음이 서울로 1.0 %, 경북이 0.9 % 순으로 나타났다.

< 表-1 > 본 적 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71	27.3	35	28.2	56	25.6	57	32.8	31	17.5	19	15.1	111	26.0	380	25.2
서귀포시	37	14.2	17	13.7	27	12.3	29	16.7	46	26.0	23	18.3	45	10.5	224	14.9
남원읍	18	6.9	3	2.4	7	3.2	11	6.3	24	13.6	9	7.1	24	5.6	96	6.4
대정읍	16	6.2	5	4.0	15	6.8	5	2.9	7	4.0	5	4.0	18	4.2	71	4.7
성산읍	8	3.1	4	3.2	12	5.5	5	2.9	5	2.8	5	4.0	15	3.5	54	3.6
안덕면	9	3.5	4	3.2	6	2.7	2	1.1	4	2.3	3	2.4	11	2.6	39	2.6
표선면	6	2.3	5	4.0	7	3.2	5	2.9	12	6.8	1	0.8	12	2.8	48	3.2
구좌읍	14	5.4	11	8.9	11	5.0	10	5.7	11	6.2	7	5.6	29	6.8	93	6.2
애월읍	17	6.5	10	8.1	25	11.4	12	6.9	2	1.1	10	7.9	56	13.1	132	8.8
조천읍	16	6.2	8	6.5	17	7.8	10	5.7	5	2.8	4	3.2	20	4.7	80	5.3
추자면	-	-	-	-	1	0.5	-	-	1	0.6	1	0.8	2	0.5	5	0.3
한경면	12	4.6	6	4.8	13	5.9	4	2.3	3	1.7	4	3.2	18	4.2	60	4.0
한림읍	21	8.1	9	7.3	13	5.9	15	8.6	14	7.9	2	1.6	34	8.0	108	7.2
서울	3	1.2	1	0.8	-	-	2	1.1	4	2.3	3	2.4	2	0.5	15	1.0
경기	1	0.4	-	-	-	-	-	-	3	1.7	2	1.6	1	0.2	7	0.5
강원	-	-	-	-	-	-	1	0.6	-	-	1	0.8	-	-	2	0.1
충북	-	-	1	0.8	1	0.5	-	-	2	1.1	3	2.4	2	0.5	9	0.6
충남	-	-	-	-	-	-	-	-	-	-	-	1	0.2	1	0.1	
전북	4	1.5	-	-	1	0.5	1	0.6	-	-	3	2.4	2	0.5	11	0.7
전남	6	2.3	2	1.6	4	1.8	2	1.1	2	1.1	13	10.3	9	2.1	38	2.5
경북	-	-	2	1.6	-	-	-	-	-	-	3	2.4	7	1.6	12	0.8
경남	-	-	-	-	1	0.5	1	0.6	1	0.6	2	1.6	4	0.9	9	0.6
부산	1	0.4	1	0.8	1	0.5	2	1.1	-	-	2	1.6	3	0.7	10	0.7
인천	-	-	-	-	-	-	-	-	-	-	-	1	0.2	1	0.1	
대구	-	-	-	-	-	-	-	-	-	-	1	0.8	-	-	1	0.1
해외	-	-	-	-	1	0.5	-	-	-	-	-	-	-	-	1	0.1
응답	-	-	-	-	-	-	-	-	-	-	-	-	-	-	-	-

## (2) 성장지

新入生들의 주된 성장지는 <表-2>와 같다. 濟州市가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西歸浦市가 17.9%, 南元邑 6.1%, 涯月邑 5.5%, 翰林邑 4.8%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나타난 결과로 보아 新入生 대부분(95.4%)이 濟州道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lt;表-2&gt; 성 장 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107	41.2	52	41.9	87	39.7	81	46.6	42	23.7	33	26.2	194	45.4	596	39.5
서귀포시	48	18.5	23	18.5	28	12.8	37	21.3	50	28.2	28	22.2	56	13.1	270	17.9
남원읍	17	6.5	3	2.4	9	4.1	10	5.7	24	13.6	9	7.1	20	4.7	92	6.1
대정읍	12	4.6	5	4.0	15	6.8	1	0.6	6	3.4	5	4.0	11	2.6	55	3.6
성산읍	7	2.7	3	2.4	7	3.2	3	1.7	4	2.3	5	4.0	11	2.6	40	2.7
안덕면	6	2.3	3	2.4	4	1.8	1	0.6	3	1.7	2	1.6	8	1.9	27	1.8
표선면	5	1.9	4	3.2	7	3.2	5	2.9	10	5.6	1	0.8	6	1.4	38	2.5
구좌읍	8	3.1	8	6.5	6	2.7	10	5.7	11	6.2	4	3.2	22	5.2	69	4.6
애월읍	14	5.4	5	4.0	16	7.3	6	3.4	2	1.1	5	4.0	35	8.2	83	5.5
조천읍	13	5.0	7	5.6	10	4.6	4	2.3	1	0.6	2	1.6	12	2.8	49	3.3
추자면	-	-	-	-	1	0.5	-	-	-	-	1	0.8	2	0.5	4	0.3
한경면	8	3.1	4	3.2	10	4.6	2	1.1	2	1.1	2	1.6	13	3.0	41	2.7
한림읍	7	2.7	5	4.0	14	6.4	8	4.6	10	5.6	2	1.6	27	6.3	73	4.8
서울	2	0.8	1	0.8	-	-	2	1.1	3	1.7	4	3.2	4	0.9	16	1.1
경기	-	-	-	-	-	-	-	-	3	1.7	1	0.8	-	-	4	0.3
강원	-	-	-	-	-	-	1	0.6	-	-	1	0.8	-	-	2	0.1
충북	-	-	-	-	-	-	-	-	2	1.1	2	1.6	1	0.2	5	0.3
충남	-	-	-	-	-	-	-	-	-	-	-	-	-	-	-	-
전북	2	0.8	-	-	1	0.5	-	-	-	-	3	2.4	-	-	6	0.4
전남	2	0.8	-	-	2	0.9	1	0.6	2	1.1	10	7.9	1	0.2	18	1.2
경북	1	0.4	1	0.8	-	-	-	-	-	-	1	0.8	-	-	3	0.2
경남	-	-	-	-	-	-	-	-	1	0.6	1	0.8	-	-	2	0.1
부산	1	0.4	-	-	2	0.9	2	1.1	1	0.6	4	3.2	4	0.9	14	0.9
인천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해외	-	-	-	-	-	-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	-	-	-	-	-



(3) 宗教

新入生들의 宗教別 분포는 <表-3>과 같다. 宗教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전체의 58.2%로 가장 많고, 宗教를 가진 학생중 불교가 19.3%, 기독교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3> 宗 教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불 교	45	17.3	21	16.9	35	16.0	32	18.4	50	28.2	20	15.9	87	20.4	290	19.3
천 주 교	19	7.3	14	11.3	17	7.8	15	8.6	10	5.6	11	8.7	31	7.3	117	7.8
기 독 교	52	20.0	15	12.1	18	8.2	18	10.3	24	13.6	14	11.1	45	10.6	186	12.4
유 교	-	-	-	-	3	1.4	-	-	2	1.1	1	0.8	2	0.5	8	0.5
천 도 교	-	-	-	-	-	-	2	1.1	-	-	-	-	-	-	2	0.1
원 불 교	1	0.4	3	2.4	-	-	1	0.6	2	1.1	3	2.4	3	0.7	13	0.9
기 타	2	0.8	1	0.8	-	-	2	1.1	-	-	3	2.4	5	1.2	13	0.9
종교없음	141	54.2	70	56.5	146	66.7	104	59.8	89	50.3	74	58.7	252	59.2	876	58.2
무 응답	-	-	-	-	-	-	-	-	-	-	-	-	2	0.5	2	0.13

宗教가 없다고 응답한 學生들을 大學別로 보면 經商大가 6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師範大 59.8%, 理工大 59.2%, 海洋科學大 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 령

新入生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表-4>와 같다.

1988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학생이 6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19세가 23.8%, 만 17세가 7.1%, 만 20세가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조사대상자의 92.3%가 만 17~19세 사이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4〉 연 령

항목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만 16 세 이하	-		-		-		-		-		1	0.6	-		1	0.2	2	0.1
만 17 세	19	7.3	10	8.1	14	6.4	17	9.8	9	5.1	6	4.8	32	7.5	107	7.1		
만 18 세	166	63.8	68	54.8	133	60.7	113	64.9	120	67.8	73	57.9	252	59.0	925	61.4		
만 19 세	57	21.9	27	21.8	55	25.1	38	21.8	38	21.5	35	27.8	109	25.5	359	23.8		
만 20 세	8	3.1	8	6.5	14	6.4	3	1.7	8	4.5	7	5.6	22	5.2	70	4.6		
만 21 세	3	1.2	2	1.6	1	0.5	-		-		3	2.4	2	0.5	11	0.7		
만 22 세	2	0.8	-		-		-		-		1	0.8	4	0.9	7	0.5		
만 23 세	3	1.2	1	0.8	-		2	1.1	-		-		-		6	0.4		
만 24 세	-		3	2.4	-		-		1	0.6	-		4	0.9	8	0.5		
만 25 세 이상	2	0.8	5	4.0	2	0.9	1	0.6	-		1	0.8	1	0.2	12	0.8		
무응답	-		-		-		-		-		-		-		-			

(5) 재수여부

新入生들의 재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表-5〉와 같다.

〈表-5〉 재 수 여 부

항목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다	219	84.2	98	79.0	189	86.3	161	92.5	161	91.0	114	90.5	364	85.4	1,306	86.7		
1년재수	32	12.3	16	12.9	25	11.4	12	6.9	16	9.0	12	9.5	51	12.0	164	10.9		
2년재수	6	2.3	5	4.0	4	1.8	-		-		-		7	1.6	22	1.5		
3년 이상 재수	3	1.2	5	4.0	1	0.5	1	0.6	-		-		4	0.9	14	0.9		
무응답	-		-		-		-		-		-		1	0.2	1	0.07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8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년 재수생이 10.9%, 2년이상 재수생이 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 대상자중 13.3%의 학생들이 재수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재수경험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범대의 경우 6.9%로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정, 인문, 이공, 경상대 등의 학생이 재수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재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2) 家族事項

### (1) 父母의 生存여부

父母의 生存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表-6>과 같다.

<表-6> 父母의 生存여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 모두 생존	228	87.7	105	84.7	184	84.0	145	83.3	157	88.7	108	85.7	368	86.4	1,295	86.0
부모 사망	2	0.8	2	1.6	4	1.8	7	4.0	2	1.1	3	2.4	6	1.4	26	1.7
모 부 사망	29	11.2	16	12.9	30	13.7	21	12.1	17	9.6	14	11.1	51	12.0	178	11.8
부모 사망	1	0.4	1	0.8	1	0.5	1	0.6	1	0.6	1	0.8	1	0.2	7	0.5
무 응 답	-		-		-		-		-		-		1	0.2	1	0.07

양친 모두 생존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8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친만 생존한다고 11.8%, 부친만 생존 1.7%, 양친 모두 사망이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결손가정이 1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입생 대부분이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師範大學이 결손가정 출신 학생 비율이 16.7%로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經商大 16.0%, 法政大 15.3%, 海洋科學大 14.3%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2) 保護者와의 관계

신입생들의 보호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6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인이 14.5%, 모가 13.8%, 형, 언니, 누나, 오빠가 1.7%, 祖母 0.5%, 친척 0.3%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表-7> 保護者와의 관계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128	49.4	105	84.7	180	82.2	85	49.1	100	56.5	68	54.0	362	84.3	1,028	68.3
모	38	14.7	18	14.5	34	15.5	21	12.1	17	9.6	18	14.3	62	14.5	208	13.8
형, 언니, 누나, 오빠	8	3.1	-	-	1	0.5	4	2.3	10	5.6	2	1.6	1	0.2	26	1.7
조부	-	-	-	-	-	-	-	-	-	-	-	-	-	-	-	-
조모	-	-	-	-	1	0.5	2	1.2	-	-	4	3.2	-	-	7	0.5
친척	-	-	-	-	-	-	-	-	2	1.1	3	2.4	-	-	5	0.3
본인	80	30.9	1	0.8	3	1.4	55	31.8	46	26.0	31	24.6	2	0.5	618	14.5
기타	5	1.9	-	-	-	-	6	3.5	2	1.1	-	-	-	-	13	0.9
무응답	1	0.4	-	-	-	-	1	0.6	-	-	-	-	-	-	2	0.13

(3) 保護者の 연령

新入生들의 保護者の 연령은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40.9%, 60대가 6.5%, 70대가 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新入生들의 保護者들의 연령은 40~50대의 층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8> 保護者の 연령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20대	4	1.5	4	3.2	2	0.9	2	1.1	-	-	2	1.6	5	1.2	19	1.3
30대	-	-	1	0.8	2	0.9	-	-	2	1.1	1	0.8	1	0.2	7	0.5
40대	116	44.6	52	41.9	88	40.2	86	49.4	74	41.8	53	42.1	192	45.0	661	43.9
50대	124	47.7	58	46.8	105	47.9	75	43.1	87	49.2	62	49.2	203	47.5	714	47.4
60대	16	6.2	7	5.6	21	9.6	10	5.7	12	6.8	7	5.6	25	5.9	98	6.5
70대	-	-	2	1.6	-	-	-	-	1	0.6	-	-	1	0.2	4	0.3
80대 이상	-	-	-	-	1	0.5	1	0.6	1	0.6	1	0.8	-	-	4	0.3
무응답	-	-	-	-	-	-	-	-	-	-	-	-	-	-	-	-

(4) 保護者의 學歷

新入生 保護者의 學歷은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이 35.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은 25.4%, 국졸이 23.6%, 대졸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表-9> 保護者의 學歷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무 학	4	1.5	2	1.6	5	2.3	5	2.9	9	5.1	2	1.6	11	2.6	38	2.5
한문수학	1	0.4	-	-	4	1.8	5	2.9	-	-	3	2.4	3	0.7	16	1.1
국 졸	54	20.8	32	25.8	58	26.6	32	18.4	38	21.5	29	23.0	112	26.2	355	23.6
중 졸	69	26.5	37	29.8	57	26.1	37	21.3	47	26.6	35	27.8	101	23.7	383	25.4
고 졸	86	33.1	44	35.5	73	33.5	77	44.3	60	33.9	38	30.2	154	36.1	532	35.3
대 졸	43	16.5	9	7.3	18	8.3	18	10.3	23	13.0	18	14.3	41	9.6	170	11.3
대학원졸 이	3	1.2	-	-	3	1.4	-	-	-	-	1	0.8	5	1.2	12	0.8
무 응 답	-	-	-	-	1	0.5	-	-	-	-	-	-	-	-	1	0.07

(5) 出生 순위

新入生들의 出生순위는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번째라고 답한 학생이 24.8%

<表-10> 出生 순위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1 순위	78	30.0	29	23.4	49	22.4	51	29.3	46	26.0	28	22.2	93	21.8	374	24.8
2 순위	47	18.1	27	21.8	38	17.4	34	19.5	28	15.8	21	16.7	75	17.6	270	17.9
3 순위	46	17.7	26	21.0	43	19.6	31	17.8	25	14.1	23	18.3	93	21.8	287	19.0
4 순위	45	17.3	18	14.5	27	12.3	27	15.5	29	16.4	18	14.3	75	17.6	239	15.9
5 순위	19	7.3	11	8.9	33	15.1	16	9.2	26	14.7	13	10.3	42	9.8	160	10.6
6 순위	12	4.6	11	8.9	19	8.7	7	4.0	13	7.3	9	7.1	29	6.8	100	6.6
7 순위	8	3.1	1	0.8	7	3.2	5	2.9	5	2.8	11	8.7	14	3.3	51	3.4
8 순위	4	1.5	1	0.8	2	0.9	2	1.1	2	1.1	3	2.4	5	1.2	19	1.3
9 순위	1	0.4	-	-	1	0.5	1	0.6	2	1.1	-	-	1	0.2	6	0.4
10 순위	-	-	-	-	-	-	-	-	1	0.6	-	-	-	-	1	0.1
무 응 답	-	-	-	-	-	-	-	-	-	-	-	-	-	-	-	-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세번째 19.0%, 두번째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38.3%가 네번째 이상의 아들, 딸들임으로 나타나 식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6) 家 族 數

家族數는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명이 23.8%, 7명이 16.9%, 8명 이상이 13.0%로 나타났다.

<表-11> 家 族 數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1명	1	0.4	1	0.8	-	-	-	-	-	1	0.8	2	0.5	5	0.3		
2명	2	0.8	2	1.6	6	2.7	5	2.9	4	2.3	2	1.6	7	1.6	28	1.9	
3명	15	5.8	13	10.5	13	5.9	5	2.9	8	4.5	5	4.0	20	4.7	79	5.2	
4명	20	7.7	19	15.3	22	10.0	22	12.6	20	11.3	17	13.5	49	11.5	169	11.2	
5명	53	20.4	27	21.8	52	23.7	42	24.1	43	24.3	41	32.5	101	23.7	359	23.8	
6명	75	28.8	36	29.0	61	27.9	56	32.2	39	22.0	32	25.4	118	27.6	417	27.7	
7명	60	23.1	19	15.3	38	17.4	18	10.3	31	17.5	15	11.9	73	17.1	254	16.9	
8명	23	8.8	7	5.6	19	8.7	19	10.9	23	13.0	3	2.4	33	7.7	127	8.4	
9명	5	1.9	-	-	4	1.8	5	2.9	5	2.8	7	5.6	17	4.0	43	2.9	
10명 이상	6	2.3	-	-	4	1.8	2	1.1	4	2.3	3	2.4	7	1.6	26	1.7	
무응답	-	-	-	-	-	-	-	-	-	-	-	-	-	-	-	-	

또한 3명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7) 家 族 居 住 地

新入生들의 家族 거주지는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濟州市가 4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西歸浦市 17.6%, 南元邑 6.0%, 涯月邑 5.5%, 舊左邑 4.2% 순이다. 道외의 지역은 전남 0.8%, 전북과 서울이 각각 0.5% 순으로 나타났다.

家族 居住地가 道外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海洋科學大學이 16.0%, 農

<表-12> 家族 居住地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117	45.0	62	50.0	92	42.0	86	49.4	46	26.0	42	33.3	213	49.9	658	43.7
서귀포시	46	17.7	21	16.9	27	12.3	36	20.7	48	27.1	28	22.2	59	13.8	265	17.6
남원읍	18	6.9	2	1.6	8	3.7	10	5.7	23	13.0	9	7.1	21	4.9	91	6.0
대정읍	10	3.8	3	2.4	12	5.5	1	0.6	7	4.0	4	3.2	7	1.6	44	2.9
성산읍	7	2.7	3	2.4	7	3.2	2	1.1	4	2.3	3	2.4	11	2.6	37	2.5
안덕면	4	1.5	4	3.2	4	1.8	1	0.6	4	2.3	2	1.6	6	1.4	25	1.7
표선면	5	1.9	4	3.2	7	3.2	5	2.9	10	5.6	1	0.8	7	1.6	39	2.6
구좌읍	7	2.7	8	6.5	5	2.3	11	6.3	9	5.1	4	3.2	20	4.7	64	4.2
애월읍	14	5.4	4	3.2	18	8.2	5	2.9	2	1.1	6	4.8	34	8.0	83	5.5
조천읍	14	5.4	5	4.0	14	6.4	5	2.9	1	0.6	2	1.6	13	3.0	54	3.6
추자면	-	-	-	-	1	0.5	-	-	-	-	1	0.8	2	0.5	4	0.3
한경면	8	3.1	3	2.4	7	3.2	2	1.1	2	1.1	2	1.6	8	1.9	32	2.1
한림읍	5	1.9	4	3.2	14	6.4	6	3.4	9	5.1	2	1.6	21	4.9	61	4.0
서울	1	0.4	-	-	-	-	-	-	3	1.7	2	1.6	2	0.5	8	0.5
경기	-	-	1	0.8	-	-	-	-	2	1.1	-	-	-	-	3	0.2
강원	-	-	-	-	-	-	1	0.6	-	-	-	-	-	-	1	0.1
충북	-	-	-	-	-	-	-	-	2	1.1	2	1.6	1	0.2	5	0.3
충남	-	-	-	-	-	-	-	-	1	0.6	-	-	-	-	1	0.1
전북	2	0.8	-	-	1	0.5	-	-	-	-	4	3.2	-	-	7	0.5
전남	-	-	-	-	2	0.9	1	0.6	2	1.1	6	4.8	1	0.2	12	0.8
경북	2	0.8	-	-	-	-	-	-	-	-	-	-	-	-	2	0.1
경남	-	-	-	-	-	-	-	-	2	1.1	2	1.6	-	-	4	0.3
부산	-	-	-	-	-	-	2	1.1	-	-	3	2.4	1	0.2	6	0.4
인천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1	0.8	-	-	1	0.1
해외	-	-	-	-	-	-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	-	-	-	-	-

科大學이 7.7%, 師範大學이 2.3%, 人文大學이 2.0%, 經商大學이 1.4%, 理工大學이 1.1%, 法政大學이 0.8% 순위이다.

(8) 住宅형태

新入生の 住宅형태는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家가 8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세 10.6%, 월세 2.9% 등이다.

<表-13> 住宅 형태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224	86.2	88	71.0	182	83.1	144	82.8	156	88.1	105	83.3	354	82.9	1,253	83.1
전 세	25	9.6	14	11.3	22	10.0	22	12.6	16	9.0	13	10.3	47	11.0	159	10.6
월 세	5	1.9	10	8.1	3	1.4	2	1.1	2	1.1	4	3.2	18	4.2	44	2.9
친척 집	1	0.4	4	3.2	2	0.9	-	-	-	-	-	-	2	0.5	9	0.6
기 타	5	1.9	8	6.5	10	4.6	6	3.4	3	1.7	4	3.2	6	1.4	42	2.8
무응답	-	-	-	-	-	-	-	-	-	-	-	-	-	-	-	-

3) 經濟사정

(1) 가정의 월 수입 정도

新入生들의 가정의 월 수입 정도는 <表-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 39 만원이 23.9

<表-14> 가정의 월 수입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20만원 이하	33	12.7	26	21.0	41	18.7	37	21.3	32	18.1	21	16.7	76	17.8	266	17.7
20 ~ 29만원	46	17.7	26	21.0	32	14.6	26	14.9	33	18.6	24	19.0	89	20.8	276	18.3
30 ~ 39만원	73	28.1	28	22.6	43	19.6	43	24.7	38	21.5	34	27.0	101	23.7	360	23.9
40 ~ 49만원	47	18.1	18	14.5	43	19.6	30	17.2	18	10.2	15	11.9	55	12.9	226	15.0
50 ~ 59만원	36	13.8	18	14.5	33	15.1	14	8.0	26	14.7	17	13.5	57	13.3	201	13.3
60 ~ 69만원	8	3.1	4	3.2	14	6.4	16	9.2	14	7.9	2	1.6	20	4.7	78	5.2
70 ~ 79만원	8	3.1	3	2.4	5	2.3	5	2.9	3	1.7	3	2.4	8	1.9	35	2.3
80 ~ 89만원	1	0.4	-	-	3	1.4	-	-	3	1.7	3	2.4	3	0.7	13	0.9
90 ~ 99만원	3	1.2	-	-	3	1.4	1	0.6	1	0.6	-	-	8	1.9	16	1.1
100만원 이상	5	1.9	1	0.8	2	0.9	2	1.1	9	5.1	7	5.6	10	2.3	36	2.4
무응답	-	-	-	-	-	-	-	-	-	-	-	-	-	-	-	-



%로 가장 많고, 20~29만원 18.3%, 20만원 이하가 17.7%, 40~49만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중류 가정 이상이라 할 월 50만원 이상 수입 가정이 25.2%로 나타났다.

(2) 학비조달

<表-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81.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어머니 13.9%, 형, 언니, 누나, 오빠 2.3%로 나타났다.

<表-15> 학 비 조 달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09	80.4	89	71.8	176	80.4	139	79.9	150	84.7	104	82.5	353	82.7	1,220	81.0
모	40	15.4	15	12.1	29	13.2	25	14.4	20	11.3	15	11.9	66	15.5	210	13.9
형, 언니, 누나, 오빠	5	1.9	4	3.2	6	2.7	4	2.3	4	2.3	6	4.8	5	1.2	34	2.3
조부	-	-	-	-	-	-	-	-	-	-	-	-	-	-	-	-
조모	-	-	-	-	1	0.5	1	0.6	-	-	-	-	-	-	2	0.1
친척	-	-	-	-	-	-	1	0.6	-	-	-	-	-	-	1	0.1
본인	4	1.5	14	11.3	6	2.7	3	1.7	3	1.7	-	-	3	0.7	33	2.2
기타	2	0.8	2	1.6	1	0.5	1	0.6	-	-	1	0.8	-	-	7	0.5
무응답	-	-	-	-	-	-	-	-	-	-	-	-	-	-	-	-

新入生 대부분이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2.2%로 나타났다.

(3) 家庭의 經濟수준

新入生들의 가정 경제수준은 <表-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가 50.4%로 가장 높은 반면, 매우 곤란은 7.9% (하·하, 하·중)로 나타났다.

〈表 - 16〉 家庭의 經濟 수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상·상	-		-		-		-		3	1.7	-		1	0.2	4	0.3
상·중	8	3.1	1	0.8	5	2.3	6	3.4	10	5.7	3	2.4	12	2.8	45	3.0
상·하	3	1.2	1	0.8	-		3	1.7	5	2.8	2	1.6	3	0.7	17	1.1
중·상	28	10.8	8	6.5	31	14.2	20	11.5	20	11.4	10	7.9	43	10.1	160	10.6
중·중	151	58.1	49	39.5	112	51.4	79	45.7	82	46.6	60	47.6	226	52.9	759	50.4
중·하	53	20.4	38	30.6	42	19.3	43	24.7	44	25.0	31	24.6	89	20.8	340	22.6
하·상	6	2.3	6	4.8	6	2.8	10	5.7	4	2.3	11	8.7	19	4.4	62	4.1
하·중	9	3.5	10	8.1	11	5.0	7	4.0	4	2.3	4	3.2	21	4.9	66	4.4
하·하	2	0.8	11	8.9	11	5.0	6	3.4	4	2.3	5	4.0	13	3.0	52	3.5
무응답	-		-		1	0.5	-		1	0.6	-		-		2	0.1

(4) 副職 希望여부

新入生들의 副職 希望여부는 〈表 -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한다가 51.9%, 매우 원한다 36.5%, 별로 관심이 없다 6.8%의 순위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11.6%가 副職 希望에 별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表 - 17〉 副職 希望여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원한다	98	37.7	49	39.5	79	36.1	72	41.4	59	33.3	45	35.7	148	34.7	550	36.5
원한다	142	54.6	51	41.1	114	52.1	90	51.7	86	48.6	66	52.4	232	54.5	781	51.9
별로 관심 없다	10	3.8	16	12.9	15	6.8	4	2.3	22	12.4	7	5.6	29	6.8	103	6.8
생각한 적 없다	5	1.9	6	4.8	5	2.3	7	4.0	5	2.8	5	4.0	10	2.3	43	2.9
모르겠다	5	1.9	2	1.6	6	2.7	1	0.6	5	2.8	3	2.4	7	1.6	29	1.9
무응답	-		-		-		-		-		-		1	0.2	1	0.07

(5) 副職 希望 이유

新入生들의 부직 희망 이유는 <表-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넓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38.6%로 가장 많고, 용돈 마련 36.3%, 학비마련 19.2%, 가족의 생계유지 0.5%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表-18> 副職 希望 이유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폭 넓은 사회생활	104	40.0	28	22.6	88	40.2	70	40.2	73	41.2	51	40.8	167	39.1	581	38.6
용돈마련	96	36.9	52	41.9	74	33.8	48	27.6	62	35.0	39	31.2	175	41.0	546	36.3
학비마련	45	17.3	36	29.0	46	21.0	48	27.6	24	13.6	28	22.4	62	14.5	289	19.2
가족의 생계유지	-	-	-	-	2	0.9	1	0.6	1	0.6	1	0.8	2	0.5	7	0.5
기 타	15	5.8	8	6.5	9	4.1	7	4.0	17	9.6	6	4.8	21	4.9	83	5.5
무 응답	-	-	-	-	-	-	-	-	-	-	1	0.8	-	-	1	0.07

학비마련을 위해서 부직을 희망하는 학생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法政大學이 29.0%로 높고, 다음이 師範大 27.6%, 海洋科學大 22.4%, 經商大 21.0%, 人文大 17.3%, 理工大 14.5% 등의 순위다.

4) 家族 및 對人關係

(1) 가족내에서의 개인적인 일 논의

가족 중에서 주로 누구와 개인적인 일을 논의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실입생들의 반응은 <表-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 언니, 누나, 오빠가 32.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어머니가 25.7%, 의논않음 20.8%, 아버지 11.3%의 순위이다.

따라서 가족들과 개인적인 일을 상의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0.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가족과의 대화창구가 원활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19〉 가족내에서의 개인적인 일의 논의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부	14	5.4	18	14.5	27	12.3	16	9.2	22	12.4	21	16.7	53	12.4	171	11.3
모	88	33.8	30	24.2	52	23.7	54	31.0	41	23.2	27	21.4	95	22.2	387	25.7
형·언니· 누나·오빠	80	30.8	43	34.7	72	32.9	60	34.5	51	28.8	34	27.0	149	34.9	489	32.4
동생	12	4.6	1	0.8	4	1.8	3	1.7	5	2.8	4	3.2	4	0.9	33	2.2
의논않음	45	17.3	23	18.5	48	21.9	29	16.7	41	23.2	30	23.8	98	23.0	314	20.8
기타	21	8.1	9	7.3	16	7.3	12	6.9	17	9.6	10	7.9	28	6.6	113	7.5
무응답	-		-		-		-		-		-		-		-	

(2) 父母와의 견해차이

가정에서 자신과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表-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다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15.1%, 차이가 심하다 14.1%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이가 없다는 3.9%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20〉 父母와의 견해 차이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차이가 심하다	43	16.5	14	11.3	30	13.7	25	14.4	19	10.7	18	14.3	64	15.0	213	14.1
차이가 다소 있다	172	66.2	82	66.1	146	66.7	118	67.8	117	66.1	74	58.7	271	63.5	980	65.0
그저 그렇다	37	14.2	21	16.9	27	12.3	23	13.2	32	18.1	24	19.0	64	15.0	228	15.1
차이가 없다	7	2.7	4	3.2	12	5.5	3	1.7	5	2.8	6	4.8	22	5.2	59	3.9
모르겠다	1	0.4	3	2.4	4	1.8	5	2.9	4	2.3	4	3.2	6	1.4	27	1.8
무응답	-		-		-		-		-		-		-		-	

(3) 家庭의 분위기

新入生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表-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가 64.3%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 23.2%, 언제나 화목하다 9.4%를 보여 전체적으로 96.9%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21> 家庭의 분위기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언제나 화 목하다	21	8.1	10	8.1	18	8.3	18	10.3	21	11.9	13	10.3	40	9.4	141	9.4
비교적 화목 한 편이다	161	61.9	80	64.5	146	67.0	120	69.0	109	61.9	69	54.8	281	66.1	966	64.3
그저 그렇 다	69	26.5	27	21.8	47	21.6	29	16.7	42	23.9	41	32.5	94	22.1	349	23.2
화목치 못 한 편이다	9	3.5	7	5.6	7	3.2	7	4.0	4	2.3	3	2.4	10	2.4	47	3.1
무 응 답	-		-		1	0.5	-		1	0.6	-		2	0.5	4	0.3

(4) 家庭에서의 큰 문제점

<表-22> 家庭에서의 큰 문제점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경 제 문 제	93	35.8	64	51.6	104	47.5	79	45.4	60	33.9	46	36.5	176	41.2	622	41.3
부모와의 견 해 차이	46	17.7	17	13.7	25	11.4	15	8.6	35	19.8	21	16.7	67	15.7	226	15.0
가 정 불 화	15	5.8	7	5.6	9	4.1	8	4.6	8	4.5	8	6.3	25	5.9	80	5.3
가정내의 질병	8	3.1	3	2.4	6	2.7	7	4.0	6	3.4	5	4.0	18	4.2	53	3.5
기 타	41	15.8	12	9.7	32	14.6	33	19.0	30	16.9	22	17.5	57	13.3	227	15.1
문제점이 없다	57	21.9	21	16.9	43	19.6	32	18.4	38	21.5	24	19.0	84	19.7	299	19.8
무 응 답	-		-		-		-		-		-		-		-	

신입생들 중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經濟문제라고 답한 학생은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3%로 가장 높고, 문제점이 없다 19.8%, 부모와의 견해차이 15.0%, 기타 15.1%, 가정불화 5.3%, 가정내의 질병 3.5% 순으로 나타났다.

經濟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을 大學別로 보면 法政大 5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經商大 47.5%, 師範大 45.4%, 理工大 41.2%, 人文大 35.8%, 農科大 33.9% 순위이다.

#### (5) 父母의 養育態度

부모들의 학생들에 대한 養育態度는 민주적이라고 주로 답하고 있다.

<表-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권위적 25.7%, 모르겠다 12.0%의 순위다.

<表-23> 父母의 養育態度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민주적	18	6.9	13	10.6	14	6.4	12	6.9	15	8.5	8	6.3	33	7.8	113	7.5
민주적	131	50.4	67	54.5	122	55.7	96	55.2	78	44.1	71	56.3	219	51.5	784	52.1
권위적	79	30.4	30	24.4	50	22.8	37	21.3	54	30.5	27	21.4	109	25.6	386	25.7
매우 권위적	6	2.3	3	2.4	8	3.7	5	2.9	3	1.7	5	4.0	11	2.6	41	2.7
모르겠다	26	10.0	10	8.1	25	11.4	24	13.8	27	15.3	15	11.9	53	12.5	180	12.0
무응답	-		1	0.8	-		-		-		-		2	0.5	3	0.2

#### (6) 장래 문제에 대한 의논

신입생들에게 장래문제 및 현실적인 자기문제에 관하여 혼자 결심하기 어려울 때 주로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라는 물음에는 <表-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 누나, 언니, 오빠와 의논한다가 31.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26.4%, 어머니 20.1%, 선배 7.2%, 스승 2.4% 순으로 나타났다.

<表-24>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아버지	13	5.0	13	10.5	27	12.3	11	6.3	18	10.2	12	9.6	51	11.9	145	9.6
어머니	72	27.7	19	15.3	45	20.5	47	27.0	31	17.6	17	13.6	72	16.9	303	20.1
형, 누나, 언니, 오빠	77	29.6	41	33.1	66	30.1	52	29.9	58	33.0	29	23.2	145	34.0	468	31.1
선배	18	6.9	9	7.3	13	5.9	11	6.3	14	8.0	13	10.4	31	7.3	109	7.2
스승	7	2.7	2	1.6	5	2.3	11	6.3	4	2.3	2	1.6	5	1.2	36	2.4
존경하는 분	8	3.1	7	5.6	7	3.2	6	3.4	4	2.3	5	4.0	10	2.3	47	3.1
기타	65	25.0	33	26.6	56	25.6	36	20.7	47	26.7	47	37.6	113	26.5	397	26.4
무응답	-	-	-	-	-	-	-	-	1	0.6	1	0.8	-	-	2	0.1

5) 大學 및 學科 지원 동기

(1) 濟州大學校 지원 동기

<表-25>  濟州大學校 지망 동기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우리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 기 때문에 타 대학에 수분야 학문연구를 위하여	50	19.2	20	16.1	29	13.3	27	15.5	20	11.4	13	10.3	50	11.7	209	13.9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	62	23.8	32	25.8	53	24.3	17	9.8	62	35.2	31	24.6	112	26.3	369	24.5
제주지역에서 직 업을 갖기 위하여	17	6.5	19	15.3	23	10.6	27	15.5	37	21.0	15	11.9	38	8.9	176	11.7
경제적으로 타 대 학에 진학할 사정 이 되지 않아서	84	32.3	37	29.8	69	31.7	79	45.5	19	10.8	18	14.3	119	27.9	425	28.3
기타	45	17.3	15	12.1	34	15.6	23	13.2	32	18.2	16	12.7	73	17.1	238	15.8
무응답	-	-	-	-	1	0.5	-	-	1	0.6	-	-	1	0.2	3	0.2

신입생들에게 본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表-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的으로 他大學에 進學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가 28.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입학가능성을 고려하여 24.5%, 기타 15.8%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지방의 유일한 國立大學이기 때문에 13.9%, 제주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11.7%, 他大學에 없는 특수분야 학문연구를 위하여 5.8% 등으로 나타나 지역사정과 학문연구를 고려한 경향도 보이고 있다.

(2) 濟州大學校 지원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들에게 본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表-2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 59.5%로 높고, 자랑스럽다 32.4%, 매우 자랑스럽다 5.4%로 나타났다.

매우 자랑스럽다와 자랑스럽다를 大學別로 보면 農科大가 45.2%로 가장 높고, 다음이 師範大 43.1%, 法政大 42.8%, 人文大 36.1%, 經商大 35.8%, 理工大 32.2%, 海洋科學大 32.0%의 순위다.

<表-26> 본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자랑스럽다	11	4.2	10	8.1	14	6.4	13	7.5	13	7.3	10	7.9	11	2.6	82	5.4
자랑스럽다	83	31.9	43	34.7	64	29.4	62	35.6	67	37.9	43	34.1	126	29.6	488	32.4
그저 그렇다	162	62.3	69	55.6	131	60.1	95	54.6	92	52.0	71	56.3	275	64.6	895	59.5
부끄럽다	3	1.2	2	1.6	5	2.3	2	1.1	1	0.6	2	1.6	10	2.3	25	1.7
매우 부끄럽다	1	0.4	-	-	4	1.8	2	1.1	4	2.3	-	-	4	0.9	15	1.0
무응답	-	-	-	-	1	0.5	-	-	-	-	-	-	1	0.2	2	0.1

(3) 學科선택 결정 요인

신입생들의 학과선택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表-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에 맞아서가 전체의 3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업적 전망 32.5%, 입학가능성 13.9%, 기타 10.4%, 이상실현 9.7%의 순위다.



〈表-27〉 學科 선택 결정 요인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36	13.8	45	36.3	118	53.9	53	30.5	47	26.6	48	38.4	142	33.3	489	32.5
적성	145	55.8	28	22.6	50	22.8	69	39.7	36	20.3	25	20.0	151	35.4	504	33.5
입학 가능성	29	11.2	15	12.1	26	11.9	17	9.8	53	29.9	20	16.0	50	11.7	210	13.9
이상 실현	28	10.8	16	12.9	11	5.0	21	12.1	16	9.0	17	13.6	37	8.7	146	9.7
기타	22	8.5	20	16.1	14	6.4	14	8.0	25	14.1	15	12.0	47	11.0	157	10.4
무응답	-	-	-	-	-	-	-	-	-	-	1	0.8	-	-	1	0.07

(4) 學科 선택 시기

신입생들이 學科를 선택한 시기는 〈表-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 3학년 2학기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입학원서 접수직전 29.1%, 고교 1~3학년 1학기 18.0%,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이 4.1%의 순위다.

〈表-28〉 學科 선택 시기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입학원서 접수 직전	52	20.0	40	32.5	65	29.8	52	29.9	79	44.6	35	27.8	115	26.9	438	29.1
고교 3학년 2학기	104	40.0	63	51.2	111	50.9	75	43.1	71	40.1	71	56.8	240	56.2	735	48.8
고교 1~3학년 1학기	81	31.2	17	13.8	40	18.3	34	19.5	20	11.3	15	11.9	64	15.0	271	18.0
중학교 또는 그 이전	23	8.8	3	2.4	2	0.9	13	7.5	7	4.0	5	4.0	8	1.9	61	4.1
무응답	-	-	1	0.8	1	0.5	-	-	-	-	-	-	-	-	2	0.1

(5)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들이 현재 입학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表-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하다가 45.2%로 제일 높고, 보통이다 32.8%, 현재 잘 모르겠다 19.4%, 불만이다 2.7%의 순위다.

학과 선택에 있어서 만족과 보통이라고 한 것은 師範大學이 87.3%로 가장 높고, 理工

〈表-29〉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만족하다	132	51.2	55	44.7	101	46.3	86	49.4	59	33.3	53	42.4	193	45.2	679	45.2
보통이다	75	29.1	39	31.7	63	28.9	66	37.9	52	29.4	44	35.2	153	35.8	492	32.8
불만이다	4	1.6	2	1.6	7	3.2	5	2.9	8	4.5	4	3.2	10	2.3	40	2.7
현재 잘 모르겠다	47	18.2	27	22.0	47	21.6	17	9.8	58	32.8	24	19.2	71	16.6	291	19.4
무응답	2	0.8	1	0.8	1	0.5	-	-	-	-	1	0.8	-	-	5	0.3

大學 81.0%, 人文大學 80.3%, 海洋科學大學 77.6%, 法政大學 75.4%, 經商大學 75.2%, 農科大學 62.7%의 순위이다.

학과선택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만족과 보통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6) 大學生活

### (1) 入學後 거주지

신입생들에게 입학후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를 〈表-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市가 7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西歸浦市 8.2%, 涯月邑 4.2%, 朝天邑 3.3%, 翰林邑 2.4% 순으로 나타났다.

〈表-30〉 입학후 거주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197	75.8	100	80.6	167	76.3	138	79.3	138	78.0	94	74.6	324	75.9	1,158	76.8
서귀포시	24	9.2	11	8.9	11	5.0	18	10.3	15	8.5	17	13.5	28	6.6	124	8.2
남원읍	2	0.8	-	-	-	-	1	0.6	8	4.5	1	0.8	3	0.7	15	1.0
대정읍	4	1.5	-	-	2	0.9	-	-	1	0.6	-	-	5	1.2	12	0.8
성산읍	-	-	1	0.8	-	-	-	-	-	-	1	0.8	2	0.5	4	0.3
안덕면	2	0.8	-	-	3	1.4	-	-	2	1.1	1	0.8	-	-	8	0.5
표선면	-	-	-	-	-	-	1	0.6	3	1.7	1	0.8	2	0.5	7	0.5
구좌읍	2	0.8	4	3.2	1	0.5	3	1.7	2	1.1	2	1.6	10	2.3	24	1.6
애월읍	12	4.6	4	3.2	15	6.8	4	2.3	2	1.1	4	3.2	22	5.2	63	4.2
조천읍	13	5.0	3	2.4	13	5.9	6	3.4	1	0.6	1	0.8	12	2.8	49	3.3

(표-30 계속)

항목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추자면	-		-		-		-		-		-		-		-		-		-
한경면	-		-		-		-		-		-		2	0.5	2	1.0	2	1.0	2
한림읍	3	1.2	1	0.8	7	3.2	3	1.7	5	2.8	2	1.6	15	3.5	36	2.4	36	2.4	36
서울	-		-		-		-		-		-		1	0.2	1	0.1	1	0.1	1
경기	1	0.4	-		-		-		-		-		-		1	0.1	1	0.1	1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2	1.6	-			2	0.1	2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1	0.2	1	0.1	1	0.1
경남	-		-		-		-		-		-		-	-			-		-
부산	-		-		-		-		-		-		-	-			-		-
인천	-		-		-		-		-		-		-	-			-		-
대구	-		-		-		-		-		-		-	-			-		-
해위	-		-		-		-		-		-		-	-			-		-
무응답	-		-		-		-		-		-		-		-		-		-

(2) 大學 전기간을 통해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表-31>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항목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문제	68	26.4	40	32.5	65	29.7	44	25.3	31	17.6	38	30.2	97	22.7	383	25.5	383	25.5	383
건강문제	3	1.2	3	2.4	2	0.9	-		3	1.7	3	2.4	7	1.6	21	1.4	21	1.4	21
병역문제	2	0.8	10	8.1	5	2.3	3	1.7	7	4.0	4	3.2	34	8.0	65	4.3	65	4.3	65
학업성취 문제	65	25.2	30	24.4	65	29.7	45	25.9	49	27.8	27	21.4	97	22.7	378	25.1	378	25.1	378
성격 및 대 학 적응문제	59	22.9	10	8.1	41	18.7	39	22.4	30	17.0	15	11.9	56	13.1	250	16.6	250	16.6	250
장래진학 문제	48	18.6	20	16.3	25	11.4	35	20.1	47	26.7	27	21.4	113	26.5	315	21.0	315	21.0	315
기 타	13	5.0	10	8.1	16	7.3	8	4.6	9	5.1	12	9.5	23	5.4	91	6.1	91	6.1	91
무응답	2	0.8	1	0.8	-		-		1	0.6	-		-		4	0.3	4	0.3	4

大學 전기간을 통해 신입생들이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表-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비문제가 2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업성취 문제, 장래 진학문제가 각각 25.1%, 21.0%, 성격 및 대학 적응문제 16.6% 순위로 나타났다.

(3) 대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중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을 살펴보면 <表-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넓은 사회경험이 27.7%로 많고, 다음이 씨클활동 15.7%, 교양서적 읽기 10.2%, 학업보충, 이성교제 각각 9.0%, 어학훈련 8.7%, 전공서적 읽기 7.6%의 순위로 나타났다.

<表-32> 대학생활중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서적 읽기	31	11.9	9	7.3	12	5.5	11	6.3	9	5.1	7	5.6	36	8.4	115	7.6
교양서적 읽기	41	15.8	17	13.7	21	9.6	25	14.4	13	7.3	8	6.3	29	6.8	154	10.2
이성교제	8	3.1	13	10.5	18	8.2	11	6.3	23	13.0	11	8.7	52	12.2	136	9.0
폭넓은 사회경험	76	29.2	27	21.8	70	32.0	45	25.9	53	29.9	41	32.5	105	24.6	417	27.7
씨클활동	27	10.4	18	14.5	28	12.8	34	19.5	24	13.6	25	19.8	80	18.7	236	15.7
교수와의 접촉	14	5.4	6	4.8	20	9.1	10	5.7	16	9.0	8	6.3	30	7.0	104	6.9
어학훈련	23	8.8	17	13.7	25	11.4	14	8.0	11	6.2	10	7.9	31	7.3	131	8.7
학업보충	29	11.2	10	8.1	13	5.9	16	9.2	18	10.2	9	7.1	41	9.6	136	9.0
부직활동	3	1.2	2	1.6	4	1.8	1	0.6	4	2.3	2	1.6	11	2.6	27	1.8
기 타	8	3.1	5	4.0	8	3.7	7	4.0	6	3.4	5	4.0	12	2.8	51	3.4
무 응답	-		-		-		-		-		-		-		-	

(4) 과외활동 참여 여부

<表-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과외활동 참여 여부를 보면 취미분야가 3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스포츠 활동분야 11.0%, 학술분야 10.7%, 생각한 바 없다 10.5%, 봉사활동 분야 8.0% 등의 순위다.

〈表- 33〉 과외활동 참여 여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안하겠다	30	11.5	4	3.2	11	5.0	6	3.4	7	4.0	8	6.3	28	6.6	94	6.2
학술분야	22	8.5	17	13.7	22	10.0	38	21.8	11	6.2	4	3.2	47	11.0	161	10.7
봉사활동 분야	11	4.2	9	7.3	26	11.9	14	8.0	16	9.0	14	11.1	31	7.3	121	8.0
취미분야	90	34.6	43	34.7	75	34.2	41	23.6	72	40.7	54	42.9	154	36.1	529	35.1
종교분야	14	5.4	6	4.8	4	1.8	4	2.3	7	4.0	7	5.6	17	4.0	59	3.9
스포츠 활동분야	20	7.7	14	11.3	18	8.2	16	9.2	21	11.9	12	9.5	65	15.2	166	11.0
교양분야	13	5.0	5	4.0	17	7.8	13	7.5	11	6.2	10	7.9	23	5.4	92	6.1
언론분야	21	8.1	4	3.2	12	5.5	14	8.0	6	3.4	3	2.4	8	1.9	68	4.5
기 타	12	4.6	7	5.6	7	3.2	8	4.6	7	4.0	4	3.2	14	3.3	59	3.9
생각한 바 없다	27	10.4	15	12.1	27	12.3	20	11.5	19	10.7	10	7.9	40	9.4	158	10.5
무 응 답	-		-		-		-		-		-		-		-	

(5) 바라는 教授와의 인간관계

〈表- 34〉 바라는 教授와의 관계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과 자기성장을 위해 실질적 조건을 바란다	164	63.1	66	53.2	117	53.4	120	69.0	92	52.0	59	46.8	227	53.2	845	56.1
교수와 학생간에 밀착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	88	33.8	51	41.1	91	41.6	48	27.6	77	43.5	58	46.0	179	41.9	592	39.3
권위에 신복하는 엄격한 관계를 바 란다	1	0.4	2	1.6	-		-		1	0.6	1	0.8	5	1.2	10	0.7
거리감이 느껴지 고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다	3	1.2	3	2.4	9	4.1	5	2.9	6	3.4	4	3.2	12	2.8	42	2.8
기 타	4	1.5	2	1.6	2	0.9	1	0.6	1	0.6	4	3.2	4	0.9	18	1.2
무 응 답	-		-		-		-		-		-		-		-	

교수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表-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과 자기성장을 위해 실질적 조언을 바란다가 56.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밀착된 인간관계 39.3%,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다 2.8%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수관계는 학문과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바라는 학생이 95.4%로 나타났다.

(6) 教授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表-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적 지도가 7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충실한 강의의 23.8%로 나타났다.

<表-35>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충실한 강의	44	16.9	29	23.4	58	26.5	49	28.2	36	20.3	26	20.6	116	27.2	358	23.8
인간적 지도	209	80.4	88	71.0	154	70.3	117	67.2	129	72.9	91	72.2	290	68.1	1,078	71.6
지역사회발전에 봉사	4	1.5	1	0.8	1	0.5	6	3.4	8	4.5	3	2.4	11	2.6	34	2.3
기 타	3	1.2	6	4.8	6	2.7	2	1.1	4	2.3	6	4.8	9	2.1	36	2.4
무응답	-	-	-	-	-	-	-	-	-	-	-	-	1	0.2	1	0.07

(7) 讀書의 종류

<表-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讀書종류를 살펴보면 문학·취미도서 46.6%, 다음이 교양도서 27.9%, 전공과 관련된 도서 20.6%, 기타 4.9%의 순위로 나타났다.

<表-36> 讀書의 종류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과 관련된 도서	58	22.3	20	16.1	54	24.7	43	24.7	30	16.9	27	21.4	79	18.5	311	20.6
교양도서	69	26.5	50	40.3	64	29.2	40	23.0	55	31.1	39	31.0	103	24.1	420	27.9
문학·취미도서	125	48.1	43	34.7	92	42.0	77	44.3	83	46.9	51	40.5	231	54.1	702	46.6
기 타	8	3.1	11	8.9	9	4.1	14	8.0	9	5.1	9	7.1	14	3.3	74	4.9
무응답	-	-	-	-	-	-	-	-	-	-	-	-	-	-	-	-

(8)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

〈表-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을 보면 제 1, 2 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가 48.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공과 같은 비중으로 하겠다 19.8%, 제 1 외국어에 주력하겠다 18.5%, 전공 이상의 비중으로 하겠다 10.8%의 순위다.

〈表-37〉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주로 제 1 외국어에 주력하겠다	32	12.3	32	25.8	38	17.4	24	13.8	31	17.5	13	10.3	108	25.4	278	18.5
제 1, 2 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	156	60.0	46	37.1	112	51.1	98	56.3	76	42.9	78	61.9	170	39.9	736	48.9
전공 이상의 비중으로 하겠다	20	7.7	19	15.3	26	11.9	19	10.9	26	14.7	11	8.7	42	9.9	163	10.8
전공과 같은 비중으로 하겠다	47	18.1	23	18.5	39	17.8	30	17.2	39	22.0	22	17.5	98	23.0	298	19.8
외국어에 특별한 훈련 필요 느끼지 않음	5	1.9	4	3.2	4	1.8	3	1.7	5	2.8	2	1.6	8	1.9	31	2.1
무응답	-	-	-	-	-	-	-	-	-	-	-	-	1	0.2	1	0.07

(9) 어학훈련은 어떻게

〈表-38〉 어학 훈련 방법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사설학원을 통해서	26	10.0	16	12.9	34	15.5	7	4.0	21	11.9	16	12.7	55	12.9	175	11.6
클럽을 통해서	3	1.2	2	1.6	5	2.3	3	1.7	4	2.3	4	3.2	19	4.4	40	2.7
평소 강의의 충실한 수강을 통해서	139	53.5	48	38.7	70	32.0	72	41.4	75	42.4	55	43.7	161	37.7	620	41.1
토플서적 및 회화카세트를 이용	58	22.3	46	37.1	88	40.2	55	31.6	51	28.8	32	25.4	135	31.6	465	30.9
외국인과의 계속적 접촉	5	1.9	-	-	3	1.4	4	2.3	4	2.3	2	1.6	7	1.6	25	1.7
어학실습실을 활용	22	8.5	8	6.5	10	4.6	22	12.6	11	6.2	11	8.7	31	7.3	115	7.6
학교 특강을 통해서	7	2.7	4	3.2	9	4.1	11	6.3	11	6.2	6	4.8	19	4.4	67	4.4
무응답	-	-	-	-	-	-	-	-	-	-	-	-	-	-	-	-

신입생들의 어학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表-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 강의의 충실한 수강을 통해서 41.4%, 토플서적 및 회화카세트를 이용 30.9%, 사설학원을 통해서 11.6%, 어학실습실을 활용 7.6%, 학교특강을 통해서 4.4%의 순위이다.

(10)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表-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지에 대해 보통이다 53.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랑스럽다 27.6%, 대단히 자랑스럽다 8.9%인 반면, 부끄럽다 8.0%, 대단히 부끄럽다 1.9%로 나타나 전체의 9.9%의 학생이 열등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39> 자신에 대한 긍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대단히 자랑스럽다	12	4.6	15	12.1	11	5.0	18	10.3	14	7.9	16	12.8	48	11.2	134	8.9
자랑스럽다	53	20.4	31	25.0	53	24.2	59	33.9	61	34.5	38	30.4	121	28.3	416	27.6
보통이다	163	62.7	68	54.8	133	60.7	80	46.0	91	51.4	58	46.4	214	50.1	807	53.6
부끄럽다	29	11.2	8	6.5	19	8.7	12	6.9	7	4.0	10	8.0	35	8.2	120	8.0
대단히 부끄럽다	3	1.2	2	1.6	3	1.4	5	2.9	4	2.3	3	2.4	9	2.1	29	1.9
무응답	-	-	-	-	-	-	-	-	-	-	1	0.8	-	-	1	0.07

(11)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表-40>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학벌	10	3.8	5	4.0	9	4.1	10	5.7	4	2.3	5	4.0	23	5.4	66	4.4
가문·배경	6	2.3	4	3.2	3	1.4	3	1.7	6	3.4	-	-	3	0.7	25	1.7
재력	9	3.5	4	3.2	9	4.1	1	0.6	13	7.3	10	7.9	17	4.0	63	4.2
인격	30	11.5	16	12.9	24	11.0	27	15.5	16	9.0	6	4.8	48	11.2	167	11.1
인간관계	43	16.5	21	16.9	35	16.0	27	15.5	36	20.3	24	19.0	79	18.5	265	17.6
운	2	0.8	4	3.2	3	1.4	1	0.6	1	0.6	4	3.2	8	1.9	23	1.5
노력	156	60.0	66	53.2	132	60.3	101	58.0	98	55.4	75	59.5	244	57.1	872	57.9
기타	4	1.5	4	3.2	4	1.8	4	2.3	3	1.7	2	1.6	5	1.2	26	1.7
무응답	-	-	-	-	-	-	-	-	-	-	-	-	-	-	-	-



신입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表-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력이 57.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간관계 17.6%, 인격 11.1%, 학벌 4.4%, 재력 4.2%로 나타났다.

학벌, 가문, 배경, 재력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답한 학생도 10.3%를 보였다.

(2)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신입생들에게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을 묻은 결과 <表-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4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17.4%,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11.4%,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10.6%,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7.2% 순위다.

<表-41>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52	20.0	24	19.4	33	15.1	38	21.8	34	19.2	16	12.7	65	15.3	262	17.4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119	45.8	61	49.2	119	54.3	62	35.6	82	46.3	62	49.2	199	46.7	704	46.7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19	7.3	10	8.1	8	3.7	34	19.5	10	5.6	2	1.6	25	5.9	108	7.2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36	13.8	7	5.6	15	6.8	25	14.4	22	12.4	10	7.9	57	13.4	172	11.4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14	5.4	9	7.3	22	10.0	9	5.2	23	13.0	24	19.0	58	13.6	159	10.6
기 타	20	7.7	13	10.5	22	10.0	6	3.4	6	3.4	12	9.5	22	5.2	101	6.7
무응답	-	-	-	-	-	-	-	-	-	-	-	-	1	0.2	1	0.07

(13)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신입생들은 <表-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치문제 2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빈부차이 22.0%, 사치 및 부정부패 17.3%, 상호불신 11.5%, 사회질서 7.8%, 청소년 문제 6.4%로 나타났다.

〈表-42〉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 문제	13	5.0	6	4.8	7	3.2	9	5.2	11	6.2	9	7.1	19	4.4	74	4.9
빈부의 차	68	26.2	23	18.5	52	23.7	44	25.3	29	16.4	20	15.9	96	22.5	332	22.0
정치 문제	80	30.8	41	33.1	60	27.4	49	28.2	45	25.4	31	24.6	119	27.9	425	28.2
사치 및 부 정 부패	34	13.1	22	17.7	40	18.3	33	19.0	32	18.1	25	19.8	74	17.3	260	17.3
사회질서	23	8.8	10	8.1	15	6.8	14	8.0	16	9.0	8	6.3	32	7.5	118	7.8
청소년 문제	9	3.5	10	8.1	20	9.1	9	5.2	13	7.3	11	8.7	25	5.9	97	6.4
상호불신	26	10.0	11	8.9	22	10.0	15	8.6	28	15.8	18	14.3	57	13.3	177	11.7
기타	6	2.3	-	-	2	0.9	1	0.6	1	0.6	1	0.8	5	1.2	16	1.1
별 문제가 없다	1	0.4	1	0.8	1	0.5	-	-	2	1.1	3	2.4	-	-	8	0.5
무응답	-	-	-	-	-	-	-	-	-	-	-	-	-	-	-	-

(14) 제주도민이 겪고있는 가장 큰 문제

〈表-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은 문화의 낙후성 47.3%, 지방 언론기관의

〈表-43〉 제주도민이 겪고있는 가장 큰 문제

대학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청소년 비행	4	1.5	4	3.2	5	2.3	6	3.4	12	6.8	6	4.8	13	3.0	50	3.3
지방 언론기관 의 미비	43	16.5	28	22.6	46	21.0	32	18.4	35	19.8	25	19.8	93	21.8	302	20.0
문화의 낙후성	159	61.2	49	39.5	106	48.4	93	53.4	62	35.0	50	39.7	194	45.4	713	47.3
상공업의 약화	22	8.5	25	20.2	38	17.4	14	8.0	34	19.2	18	14.3	61	14.3	212	14.1
교통 문제	1	0.4	-	-	2	0.9	-	-	4	2.3	2	1.6	4	0.9	13	0.9
상수도 문제	-	-	-	-	1	0.5	-	-	-	-	1	0.8	-	-	2	0.1
정치 문제	-	-	4	3.2	1	0.5	2	1.1	2	1.1	1	0.8	9	2.1	19	1.3
교육 문제	11	4.2	6	4.8	4	1.8	11	6.3	5	2.8	4	3.2	21	4.9	62	4.1
농업 문제	16	6.2	8	6.5	13	5.9	11	6.3	12	6.8	3	2.4	29	6.8	92	6.1
제주도 사람이 아니 라서 잘 모르겠다	4	1.5	-	-	3	1.4	5	2.9	11	6.2	16	12.7	3	0.7	42	2.8
무응답	-	-	-	-	-	-	-	-	-	-	-	-	-	-	-	-

미비 20.0%, 상공업의 약화 14.1%, 농업문제 6.1%, 교육문제 4.1%, 청소년 비행 3.3% 순으로 나타났다.

(15)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소 이용여부

〈表-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하겠다는 학생이 66.0%, 이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34.0%로 나타나 이용하겠다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많다.

〈表-44〉 상담소 이용여부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예	163	62.9	82	66.7	143	65.9	107	62.6	125	71.4	93	73.8	272	64.6	985	66.0
아니오	96	37.1	41	33.3	74	34.1	64	37.4	50	28.6	33	26.2	149	35.4	507	34.0
무응답	1	0.4	1	0.8	2	0.9	3	1.7	2	1.1	-	-	6	1.4	15	1.0

(16) 상담을 원한다면 어떤 문제인가.

신입생들은 〈表-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을 가장 원하는 문제는 진로문제로 37.3%, 적성(전공과목) 23.0%, 성격·대인관계 17.5%, 경제문제 8.8% 등으로 나타나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 주고 있다.

〈表-45〉 상담을 원한다면 어떤 문제인가.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건강문제	1	0.4	1	0.8	1	0.5	1	0.6	1	0.6	1	0.8	1	0.2	7	0.5
성격·대인관계	47	18.1	21	16.9	37	16.9	36	20.7	32	18.1	18	14.4	72	16.9	263	17.5
적성(전공과목)	59	22.7	25	20.2	53	24.2	38	21.8	47	26.6	29	23.2	96	22.5	347	23.0
이성문제	5	1.9	5	4.0	4	1.8	4	2.3	6	3.4	3	2.4	13	3.0	40	2.7
진로문제	93	35.8	44	35.5	80	36.5	58	33.3	65	36.7	50	40.0	172	40.3	562	37.3
가정문제	6	2.3	3	2.4	2	0.9	-	-	3	1.7	-	-	5	1.2	19	1.3
경제문제	24	9.2	12	9.7	25	11.4	23	13.2	11	6.2	10	8.0	28	6.6	133	8.8
기타	5	1.9	6	4.8	8	3.7	5	2.9	3	1.7	4	3.2	10	2.3	41	2.7
상담을 원하지 않음	20	7.7	7	5.6	9	4.1	9	5.2	9	5.1	10	8.0	30	7.0	94	6.2
무응답	-	-	-	-	-	-	-	-	-	-	1	0.8	-	-	1	0.07

7) 卒業후의 計劃

(1) 卒業후 (병역을 필한 후)의 計劃

신입생들의 졸업후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表-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직이 6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원 진학 24.2%, 해외유학 6.1% 순으로 나타나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학생이 30.3%를 보이고 있다.

<表-46> 卒業 후의 計劃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취 직	127	48.8	87	70.2	178	81.3	123	71.1	103	58.5	82	65.6	249	58.5	949	63.1
대학원 진학	95	36.5	21	16.9	19	8.7	39	22.5	41	23.3	19	15.2	130	30.5	364	24.2
해 외 유 학	24	9.2	3	2.4	12	5.5	4	2.3	12	6.8	13	10.4	24	5.6	92	6.1
결 혼	3	1.2	4	3.2	2	0.9	1	0.6	8	4.5	4	3.2	5	1.2	27	1.8
기 타	11	4.2	9	7.3	8	3.7	6	3.5	12	6.8	7	5.6	18	4.2	71	4.7
무 응 답	-		-		-		1	0.6	1	0.6	1	0.8	1	0.2	4	0.3

(2) 직업선택시 기준

대학졸업후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表-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관한 직업이 41.9%, 다음이 직업의 안정성 22.2%, 장래전망 11.7%, 경제적인 면 8.9%, 직업의 전문성 6.0%, 사회에의 봉사 5.7%의 순위이다.

<表-47> 職業 선택 시 기준

대학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 면	10	3.8	7	5.6	22	10.0	10	5.7	14	7.9	16	12.7	55	12.9	134	8.9
사회적 지위	3	1.2	6	4.8	3	1.4	2	1.1	4	2.3	4	3.2	7	1.6	29	1.9
사회에의 봉사	7	2.7	6	4.8	6	2.7	22	12.6	13	7.3	8	6.3	24	5.6	86	5.7
장래전망	16	6.2	11	8.9	27	12.3	13	7.5	29	16.4	24	19.0	57	13.3	177	11.7
직업의 전문성	20	7.7	8	6.5	11	5.0	6	3.4	8	4.5	3	2.4	35	8.2	91	6.0
직업의 안정성	52	20.0	42	33.9	60	27.4	39	22.4	40	22.6	22	17.5	80	18.7	335	22.2
자신의 적성과 소질	150	57.7	40	32.3	88	40.2	75	43.1	68	38.4	49	38.9	161	37.7	631	41.9
기 타	2	0.8	4	3.2	2	0.9	7	4.0	1	0.6	-		8	1.9	24	1.6
무 응 답	-		-		-		-		-		-		-		-	

(3) 대학졸업후 희망하는 직업

대학졸업후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나는 물음에는 <表-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21.4%, 교수·연구원 17.3%, 교육자 15%, 사업가 7.8%, 서어비스업 7.1%, 금융회사원 5.2%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53.7%가 공무원(교육자), 연구원 등을 선호하고 있다.

<表-48> 대학졸업후 희망하는 직업

항목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농업	-		1	0.8	1	0.5	-		30	16.9	3	2.4	4	0.9	39	2.6
수산업	-		-		-		-		-		29	23.0	6	1.4	35	2.3
공업	-		-		-		-		3	1.7	1	0.8	27	6.3	31	2.1
건설업	-		-		-		-		1	0.6	1	0.8	5	1.2	7	0.5
서어비스업	20	7.7	1	0.8	35	16.0	2	1.1	11	6.2	6	4.8	32	7.5	107	7.1
금융회사원	2	0.8	1	0.8	56	25.6	-		5	2.8	-		15	3.5	79	5.2
공무원	34	13.1	84	67.7	42	19.2	15	8.6	44	24.9	25	19.8	79	18.5	323	21.4
교육자	55	21.2	3	2.4	4	1.8	131	75.3	7	4.0	1	0.8	25	5.9	226	15.0
정치가	-		1	0.8	-		1	0.6	1	0.6	1	0.8	-		4	0.3
법률가	-		11	8.9	-		-		-		-		-		11	0.7
언론분야	44	16.9	7	5.6	5	2.3	2	1.1	1	0.6	2	1.6	9	2.1		
종교인	2	0.8	1	0.8	-		-		1	0.6	-		3	0.7	7	0.5
군인	1	0.4	1	0.8	1	0.5	-		5	2.8	5	4.0	1	0.2	14	0.9
사업가	3	1.2	6	4.8	39	17.8	-		22	12.4	12	9.5	35	8.2	117	7.8
상업	-		1	0.8	8	3.7	1	0.6	2	1.1	2	1.6	9	2.1	23	1.5
문학·예술인	42	16.2	-		2	0.9	-		-		-		17	4.0	61	4.0
교수·연구원	47	18.1	2	1.6	15	6.8	21	12.1	34	19.2	29	23.0	112	26.2	260	17.3
의사	-		-		-		-		-		1	0.8	3	0.7	4	0.3
무직	-		-		-		-		-		-		1	0.2	1	0.1
기타	10	3.8	4	3.2	11	5.0	1	0.6	10	5.6	8	6.3	43	10.1	87	5.8
안계심	-		-		-		-		-		-		-		-	
무응답	-		-		-		-		-		-		-		-	

## IV. 結 論

### 1. 生活環境

大部分의 學生들이 濟州市와 西歸浦市(57.4%), 農漁村(34.2%, 濟州市와 西歸浦市를 제외한 읍·면지역)出身이고, 宗教는 아직도 佛敎(아버지 36.5%, 어머니 64.8%)가 압도적으로 많아 傳統의인 뿌리가 깊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再修生도 약 13.3%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父母가 生存하고 있는 學生이 86.0%였으나 缺損家庭의 出身도 약 14.7%에 이르렀고, 本家(自家)에서 登校하는 學生은 全體의 64.2%인 반면, 其他(자취, 하숙 등)가 36.0%였다. 保護者의 職業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정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濟州道의 경우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농업소득이 많아진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父母의 教育水準은 大卒 이상 12.1%, 中·高 60.7%, 國 23.6%, 무학 3.6%로 학력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一般的으로 가정분위기는 보통, 화목하다고 표시했으나 당면한 가정적인 어려움은 大體로 經濟的 事情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學生들의 副職알선의 必要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學業的 背景

新入生들의 입학동기는 人格完成 및 學問的 探求를 위해 大學에 들어왔다는 학생수도 상당수에 이르렀고 學科선택에 있어서는 適性에 맞아서 택했다는 의견이 많아 매우 바람직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學科선택에 있어서도 事前에 대체로 알고 志願했으며 入學後에도 志願學科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표시했는데 매우 소망스러운 반응이라 볼 수 있다.

### 3. 個人的 要求事項

新入生들이 의논하고 싶거나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주로 學業問題, 人間關係, 學資金問題 등에도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의논하고 싶은 對象者는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가정중심에 비중을 두고 있다.

#### 4. 價値觀의 特性

신입생들의 43.4%가 폭넓은 사회경험, 써클활동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敎授·先輩들의 積極的인 방향 제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學業은 물론 幅넓은 교양과 섬세한 人間關係의 맺음,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을 익히는 방법 등 깊은 사려적 생활을 통한 대학생활의 의미를 일깨워줄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純潔問題에 관련되는 질문에도 생각보다는 매우 건전한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大學生活을 통해 이와같은 건전한 생각들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도 併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本大學校에 입학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학생수가 결코 적지 않는데 이는 앞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學風의 造成, 시설확충, 좋은 교수의 유치 등 여러 조건이 뒤따를 때 더욱 滿足度는 上昇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學校는 이와같은 具備條件을 順次的으로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課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은 學問的 追求를 우위에 두는 大學의 文化的 風土를, 다시 말해서 大學의 學問的 生態系를 形成해야 할 것이고, 또 學生指導는 當面한 學生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알게 모르게 學問的, 知性的 風土의 學風을 형성함은 물론 卒業後의 就業指導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勿論 학생생활지도는 本質的으로 문제를 안고있는 學生만이 그 對象이 아니라 全體의 모든 學生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特히 本調査에서 밝혀진 問題性의 본질을 파악하여 개개인의 상황을 照鑑하여 그 지도에 임하되 이에 병행하여 학교의 學事行政의 民主化가 實效있게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國 內

1. 高範端, 産業社會와 大學教育, 서울: 基督教文化社, 1981.
2. 吳天錫, 民主主義를 志向하여, 乙酉文化社, 1960.
3.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4. 黃應淵, 大學生の 價值觀 및 關聯된 變因에 關한 研究, 益文社, 1975.

### ○ 外 國

1. Brookover Wilbur and Goltlich David, A Sociological of Education ( N.R. American Book Co., 1964 )
2. Hutchins Robert M., Education for Freedom, ( Boston Rouge, Louisiana,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43 )
3. Rogers C.R.,(A) The Nec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7 )
4. Ulich Robert, The Human Carreer, A Philosophy of Self-Transcendence.